

# 시즌 첫 메이저 킴 도전

■ 30일 LPGA 나비스코 챔피언십 개막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07년 첫 '메이저 킴'을 놓고 스타플레이어 101명이 벌인 각축전이 30일(한국시간) 막을 올린다.

30일부터 4월2일까지 나흘간 캘리포니아주 란초미라지 미션 힐스골프장(파72·6천673야드)에서 72홀 스트로크플레이로 열리는 크라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은 여러모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꿈의 무대'로 불리는 마스터스와 흡사해 '여자 마스터스'라고 불린다.

해마다 시즌 첫 메이저대회, 특정 코스에서만 계속 개최된다는 점, 그리고 험악한 코스 세팅은 아니지만 빠르고 단단한 그린 이 선수들을 울리고 웃긴다는 사실이 그렇다.

메이저대회답게 총상금이 200만 달러에 이르고 우승 상금도 30만 달러나 되는데다 우승자가 18번홀 그린 옆 언덕에 몸을 던지는 짜릿한 우승 세리머니는 LPGA 투어 선수라면 누구나 한번쯤 해보고 싶은 대회다.

올해는 출전 자격을 갖춘 선수 모두가 '메이저 킴' 타이틀을 노리고 출사표를 던졌다.

LPGA 투어에서 주류로 자리 잡은 한국인 또는 한국계 선수는

박세리·김미현·신지애·장정 등

한국계 선수들 총 32명 출전

소렌스탐·오초아 등과 정상 다툼

모두 32명이 출전자격을 얻어 늘 그랬듯 '코리아 파티'가 될 전망이다.

이미 메이저대회 왕좌에 올라본 박세리(30·CJ), 박지은(28·나이키골프), 김주연(26·KTF), 장정(27·기업은행)을 위시해 김미현(30·KTF), 한희원(29·힐라코리아), 김주미(23·하이마트), 박희정(27·CJ), 배경은(22·CJ), 송아리(21·하이마트), 안시현(23), 이지영(22·하이마트), 이선화(21·CJ), 이마나(26·KTF), 임성아(23·농협한삼인) 등이 출전한다.

또 작년 한국여자프로골프 상금랭킹 1, 2위인 신지애(19·하이마트)와 박희영(20·이수건설), 그리고 일본여자프로골프 상금 2위에 올랐던 전미정(25·투어스테이지)도 초청장을 받았다.

신인은 메이저대회 출전 자격을 얻기 힘들지만 흥진주(24·SK)는 투어 대회 우승자 자격으로 출전권을 받았고 안젤라 박(19)은 스폰서 특별 초청선수로 선정됐다.

그렇지만 한국 선수가 우승할 가능성은 반드시 출전선수 숫자에 비례하진 않는다.

이 대회에서 세 차례나 우승한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과 작년 우승자 카리 웹(호주), 그리고 LPGA 투어 최강자로 등장한 로레나 오초아(멕시코) 등 '빅 3'도 우승컵에 잔뜩 눈독을 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량이 급성장해 새로운 강호로 등장한 스테이시 프라마나수드, 폴라 크리머(이상 미국), 홀리에타 그라나다(파라과이) 등도 '메이저 킴'에 오르려면 넘어야 할 걸림돌이 될 공산이 크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신지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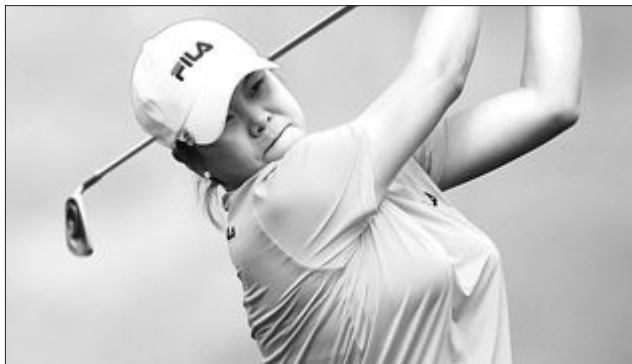
〈김미현〉



〈안시현〉



〈장정〉



〈한희원〉

# “김진우 개막전 선발 못맡겨”

롯데와 시범경기서 2이닝 8실점 '최악'

서감독 “부진 심각...이대론 어렵었다”

“개막전 선발은 꿈도 꾸지마!”

‘토종 에이스’ 김진우(24·KIA)가 불안한 제구력을 노출하며 개막전 선발 후보에서 제외됐다.

김진우는 27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와의 시범경기에서 선발로 나서 2이닝 동안 7피안타 3볼넷, 1사구 1탈삼진 8실점만 뒤 3회 강판됐다. KIA는 1-9로 패했다.

이날 2안타에 그친 KIA 타선은 9회초 2사만루에서 김경진의 밑에내기 볼넷으로 1점을 얻어 간신히 역패를 면했다.

김진우는 1회말 1안타와 1볼넷으로 2사 3루를 자초한 뒤 이대호에게 우전 적시타로 선취점을 내주며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김진우는 2회에도 롯데 박현승과 이대호에게 나란히 2타점 안타를 내주는 등 안타 5개와 사사구 3개를 허용하며 대거 7실점 한 뒤 마운드에서 물러났다.

김진우는 지난 17일 광주 SK전에서도 선발 등판해 3이닝 동안 4사구를 4개나 내주는 등 불안한 모습을 노출했다.

반면 이날 미국프로야구를 경험하고 국내

무대로 돌아온 롯데 선발 최향남(36)은 5이닝 동안 1피안타, 2볼넷, 1탈삼진 무실점으로 복귀 후 첫 승을 신고했다.

서정환 KIA 감독은 경기 후 “김진우의 부진이 심각하다. 부진은 없지만 제구력과 투구 밸런스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든다”면서 “당초 (김)진우를 개막전 선발로 생각했으나, 현재 상황으로서는 개막전 선발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밖에 현대는 정성훈의 결승 3점 홈런을 앞세워 삼성의 추격을 6-3으로 뿌리쳤고, 대전 구장에서는 박재홍과 김재현이 나란히 마수같이 1점 홈런을 터뜨린 SK가 한화를 3-2로 눌렀다.

또 ‘서울 라이벌’ LG와 두산은 9회 대결 끝에 3-3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시범경기에서는 연장전을 하지 않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찬호 안풀리네

10이닝 2실점 구원 실패



볼펜에서 정규 시즌을 맞이하는 미국프로야구 뉴욕 메츠의 박찬호(34)가 시범 경기 첫 구원 등판에서 홈런을 맞고 2실점 했고, 탬파베이 데블레이스의 우완투수 유제국(24)은 4일만에 등판해 호투했다.

박찬호는 27일(한국시간) 플로리다주 포트 세인트루시 트레이닝 필드에서 벌어진 친정팀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와 시범 경기에서 5-3으로 앞선 8회 필드 세 번째 투

수로 마운드에 올라 1이닝 동안 2실점하고 9회 조 스미스로 교체됐다.

안타와 볼넷을 1개씩 내줬는데 안타가 곧 홈런이어서 실점이 커졌다. 시범경기 평균 자책점은 6.57에서 7.42로 나빠졌다.

유제국은 이날 플로리다주 윈터헤이븐 체인 오브레이크스파크에서 열린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 시범경기에서 3-4로 뒤진 8회 말 1사 이후 3번째 투수로 구원등판해 2타자를

땅볼 쳐리했다.

유제국은 6경기째 출전한 이날 23일 미네소타전에서 2이닝 동안 2실점한 부진을 씻고 잘 던지면서 평균자책점을 3.12(종전 3.38)로 조금 낮췄다.

클리블랜드가 4-3으로 이겼고 전날 홈런포를 쏘아 올렸던 추신수(클리블랜드)는 출장하지 않았다.

한편 올해 미국프로야구에 진출한 일본인 투수 마쓰자카 다이세키(27·보스턴 레드삭스)는 ‘괴물’다운 위력투 행진을 이어갔다.

마쓰자카는 이날 미국 플로리다주 사라소타의 에드스미스파크에서 열린 신시내티 레즈와 원정경기에서 선발 등판, 5이닝 동안 삼진 6개를 속아내며 무안타 무실점으로 틀어막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함평다이너스티CC 4월 한달간 허브축제

1부 내장객 전원 화분 제공

○~4개월 양산디 골프장 함평다이너스티CC(대표 이준희)는 4월 한달동안 허브 축제를 개최한다.

함평다이너스티CC는 1일부터 1부 내장객(오전 6시 50분~8시 30분) 전원에 게 허브화분(파인애플세이지, 로즈마리, 스파민트)을 제공하고 레스토랑에서는 허브샐러드를 무료 제공한다.

또 남내 목욕탕에 있는 녹차탕을 허브탕으로 교체하고 티박스 주변과 단체실,

현관 VIP룸 등에 허브화분을 배치해 내장객들에게 상쾌한 환경에서 골프와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준희 대표는 “봄을 맞아 내장객들이 골프장 어느 곳을 가더라도 향긋한 허브향기와 함께 건강도 챙기고 상쾌한 기분으로 라운딩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골드레이크 칠죽 등 식재

○~골드레이크CC(사장 김영섭)는 오

는 3월말까지 36홀 전체에 칠죽 식재 및 보식작업을 실시한다.

골드레이크CC는 기존 칠죽 화단과 법면(경사면)에 영산홍, 석류 등 1만그루를 식재해 밝고 화려한 봄 기운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골드레이크CC관계자는 “이번 칠죽식재를 통해 부족했던 공간에 꽃밭이 조성돼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라운딩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배출

4월 2일 첫진도 개강

노동부 인정 직업능력훈련기관

제10회 주택관리사 시험대비

제8회 주택관리사 시험 광주지역 합격자 196명 중 본인출신 143명 합격!

227-8003 (구도청 앞 전일빌딩 뒤)

971-0002 (빅마트 횡단점 옆 광주은행 4F)

## 국비무료모집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 과정)

### 주택관리사·공인중개사

자격지과정(교육기간)	교육내용(교육시간)
주택관리사(월~토) 교육기간: 4/2~6/2	민법, 회계원리, 관계법규, 관리실무, 사생활론 (월~금: 19:00~22:30, 토 15:00~18:30)
주택관리사 주말반(토, 일) 교육기간: 5/5~7/1	민법, 회계원리, 관계법규, 관리실무, 사생활론 (토 14:00~18:00, 일 10:00~17:00)
공인중개사(월~토) 교육기간: 5/1~6/30	민법, 법령, 세법, 공시법, 부동산학개론, 공법 (월~금: 19:00~22:30, 토 15:00~18:30)
사무자동화(월~금) 개강: 5/13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사무자동화실기 교재무료제공

기타 사항

- 모집대상: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사업장에 근무 중인 재직근로자
- 기타사항: 수료후 100% ~ 80%환급
- 접수: 신청기간: 훈련상담 → 훈련수강신청서 작성 → 훈련기관에 제출 → 수강
- 수강절차: 훈련상담 → 훈련수강신청서 작성 → 훈련기관에 제출 → 수강
-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자격 직장

버스노선

- 전남여고교문37, 지원52, 지원54, 금남58, 두암81, 518
- 애슬이거리 1인구, 풍산07, 금남58, 대촌70, 대촌70
- 문화전당역(구 도화) 4진철07, 집단지9, 지원45, 지원51, 지원52, 지원53, 금남55, 금남56, 금남57, 금남58, 금남59, 풍암61, 문흥80, 두암82, 518, 1187

노동부 지정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현대직업전문학교

224-4560, 224-4580, 232-1088

★ 위치: 전남여고 건너편 김재규 경찰학원 3층 ★ http://www.hdedu.co.kr

## 전남 교육청(가능직) 제한경쟁 특별임용 대특강

### 공무원 특별임용

응시연령: 1961. 1. 1. ~ 1989. 12. 31. 18세, 45세 나이

채용인원: 25명 (10등급 조주)

중부권: 나주, 담양, 곡성, 화순, 장성 25명

동부권: 여수, 순천, 광양, 구례, 장흥, 고흥, 보성 35명

서부권: 목포,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완도, 진도, 신안 40명

기타: 운전10, 기계1, 난방1, 선박3, 선박기관1, 총116명 임용

④ 시험일자: 4월 28일. 조주10등급 시험과목: 사회, 일반상식 2과목

※ 기타 기술직은 전공+일반상식 2과목. 자세한 사항은 전남교육청 홈페이지 참조

개강: 4월 2일 평일 야간반 및 주말반 모집(현재 접수중)

시험과목: 무등고시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중앙로교 후문앞) 222-4560

## 경찰직 수험생 및 직장인(20~40세) 공무원합격 절호의 기회!

# 교정직 특채

360명 남자 329명 시험일정: 5월 13일 개강 4월 2일

360명 여자 31명 원서접수: 4월 9일 ~ 4월 15일

시작부터 합격까지! 합격생들에게 100% 검증된 서울고시학원에서 합격의 꿈을 이루세요!

서울고시학원 북구청 맞은편 (062) 251-7959

## Speed 인생역전! 대학편입, 의치의학, 한의학전문대학원

# 합격생 70% 김영출신

의치의학, 한의학전문대학원 대비반 개강 4월 2일

약대/한의대/수의대 편입대비반

08년 편입시험 대비반(일반편입/학사편입)

4개월 맞춤형 강좌: 기초-이론-객용-핵심-심화

개설과목: 영어, 언어추론, 생물, 화학, 유기화학, 물리, 한문, 한의학

그동안 김영출신 11만 5천여명 합격

www.kjmyoung.co.kr

김영(PMS)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 227-8088